

출판계 움직임

‘월봉저작상’에 尹武炳 교수

月峰韓基岳선생기념사업회(회장 李熙昇)는 제14회 ‘월봉저작상’ 수상자로 「韓國靑銅器文化研究」(1987·예경산업사)를 펴낸 尹武炳교수(충남대)를 선정, 그 시상식을 4월12일 오후4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희승·李寬求·千寬宇·金元龍씨 등 학계·언론계 인사들과 심사위원인 李光麟(서강대)·愼鏞廈(서울대)·閔賢九(고려대)교수 등이 참석, 수상자의 노고를 기렸다.

월봉 한기약(1898-1941)선생은 일찌기 상해임시정부 법무위원·동아일보 발행인·시대일보 편집국장·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 독립운동가·언론인으로 활약했다. 일조각 韓萬年사장의 선친.

제3회 ‘단체상’에 李五德씨

도서출판 한길사(대표 金彦鎬)가 민족사학자 단체 신채호 선생의 역사사상을 기려 제정한 제3회 ‘단체상’이 李五德씨(어린이교육가·아동문학가)에게 주어졌다.

지난 4월8일 오후7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베풀어진 시상식에서는 문학평론가 任軒永씨의 「이오덕선생의 교육이론과 문학사상」이란 기념강연이 있었다.

‘전시회목록 300選’ 전시회

한국학관계 각종 전시회의 목록 300종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한국학연구소(소장 金根洙) 주최로 4월16일~21일 동연구소 4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학의 역사적인 가지가지 전

‘아동도서 일러스트 워크샵’

국내 최초로 5월2일부터...세계적 전문가들 참여

‘아동도서 제작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샵’이 국내 최초로 오는 5월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제13회 어린이독서주간(5.1~7)을 맞아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ACCU·일본)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 워크샵에는 국내 전문가들과 일본 및 인도의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참여, 국내의 아동도서편집자와 일러스트레이터 및 지방생들을 위해 일러스트 이론과 실기를 강습한다.

한편 워크샵 기간중 ‘한국 그림책 출판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되며, 수강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의 대표적인 아동도서와 어린이 그림책에 관한 국내외 참고문헌 전시도 마련된다.

최근 한국의 국제저작권조약 가입 등 저작권의 문호개방을 계기로, 국내 도서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그림책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 창작 그림책의 개발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번 워크샵은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샵의 주요 일정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4-5면에 관련기사)

▲5월2일(월)=아동도서의 특성(남미영·교육개발원 연구원)

▲3일(화)=아동문학론(김경중·전주우석대 교수)

▲4일(수)=아동심리와 그림(이상금·이화여대 교수), 아동도서편집이론(松居直·일본福音館 회장)

▲6일(금)=일러스트레이션 개론(이원복·덕성여대 교수), 아동도서편집기법(松居直)

▲7일(토)=그림동화창작론(라마찬드란·인도), 그림책 디자인론(太田大八·일러스트레이터)

▲9일(월)~11일(수)=그림동화 창작실기, 그림책 디자인실기

▲12일(목)=종합평가, 종합토론

▲13일(금)=한국어린이도서상 시상식 및 리셉션

시회의 목록 300선 전시회’라는 이름의 이 이색전에는 완당 김정희선생 유묵·유품전시회(1932·서울), 조선불교전적전람회(1934·경성제대), 조선어학도서전람회(1935·평양), 조선경제관계자료전관(1936·경성제대), 일본에도(江戸)시대의 일선문물교류참고도서전람회(1940·총독부도서관), 조선명가서화전람회(1940·북경) 등을 비롯, 춘원 이광수 유품자료전시회(1969·한국문학연구원), 시인 윤동주 유고전(1970·국립중앙도서관) 등 일제시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열렸던 한국학관계 전시회목록들이 선을 보인다.

한국학연구소는 종래의 중앙대학교 산하에서 독립, 이번에 종로구 명륜동2가 29로 이전 재개설했다. 전화는 762-6991, 743-6170.

출판인산악회, 히말라야 등반

許昌成씨(평화출판사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출판인산악회

회원 7명이 히말라야 등반차 4월12일 출국, 약2주간 예정으로 장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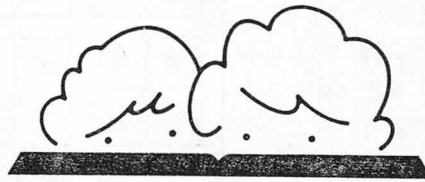
이번 등반에는 尹炯斗(범우사)·李起雄(열화당)·白正基(二友출판사)·全采浩(혜원출판사)·安光龍(진명출판사)·金彦鎬(한길사)씨 등이 참가했다. 4월25일께 귀국예정.

불란서·벨기에 만화전시회

불란서 및 벨기에 만화전시회가 4월16일~22일 1주일간 종로서적



과 불란서문화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IPC '88

INTERNATIONAL EXHIBITION OF PICTURE BOOK ILLUSTRATION FOR CHILDREN

ILLUSTRATION WORKSHOP FOR PUBLISHING CHILDREN'S BOOK

제1회 ‘아동도서제작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워크샵’과 ‘국제그림동화원화전시회’의 심볼 마크.

‘국제그림동화 원화전시회’도 열려

제1회 국제그림동화원화전시회가 5월4일~9일 롯데쇼핑 신관 8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출협과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가 마련하는 이 전시회에는 한국·일본을 비롯한 13개국 63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 180여점이 선보인다.

일본출협 服部 회장 내한

일본서적출판협회 服部敏幸회장(講談社회장)이 5월1일 내한한다.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이사를 겸하고 있는 服部 회장은 이번 ‘아동도서 일러스트 워크샵’에 참가하는 8명의 강사를 이끌고 온다.

日進社 주소 이전

도서출판 일진사(대표 李廷日)가 지난 3일 용산구청 뒤로 주소를 옮겼다. 새 주소는 용산구 효창동 5-104(714-2710, 715-3536).

문학세계사 사무실 옮겨

문학세계사(대표 金鍾海)는 4월 3일자로 주소를 서초구 서초동 1360-17로 이전했다. 전화는 568-4974~6.

‘인쇄협회 40년史’ 편찬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허철중)는 협회 40년의 발자취를 엮는 「40년史」를 발간할 계획이다.

종이 변질방지劑 국내생산

종래 미국의 허클레스화학이 독점공급하던 종이 변질방지제인 중성사이즈劑가 우리나라와 동 회사의 합작으로 89년부터 국내생산된다.

최근 허클레스화학과 국내의 隆進산업이 80 대 20의 비율로 자본금 1억2천5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허클레스화학은 연내에 경북 김천에 대지 7천평, 건평 3천평 규모의 공장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